

광주 최원재 체조 4관왕...철봉·평행봉·링·개인종합 ‘금’



광주 J리듬&체조클럽 최원재가 2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남자 12세이하 경기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광주 최원재(J리듬&체조클럽)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최원재는 2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체조 남자 12세이하부 종목경기에 출전해 철봉(12.225점), 평행봉(12.600점), 링(11.775점)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4일 개인종합에서 72.425점을 받으며 금메달을 획득했던 최원재는 대회 4관왕에 올랐다.

최원재는 도마(12.113점), 마루운동(12.225점)에서도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출전한 전 종목에서 입상,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태권도에서는 남자 12세이하 50~54kg에 출전한 허단(일동초 6년)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15세이하 58~64kg에 출전한 최보은(광주체중 3년)은 2위를 기록하며 광주 태권도 저력을 증명했다.

이외에 씨름 남자15세이하 용사급에 나선 김하울(광주중 2년), 핸드볼 여자15세이하 조대여중, 농구 남자15세이하 문화중, 레슬링 남자 15세이하 자유형 92kg급 최지원(광주체중 3년)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에서는 여자12세이하 광주선발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여자15세이하 광주체육중

제54회 소년체전 3일째 성적

도마·마루 은메달...전종목 입상 광주체육중 배드민턴 결승 진출 전남체육중 김정민 레슬링 ‘금’ 복싱 손지후·이승민 ‘은’ 확보

은 준결승에서 강원선발에 3-0으로 승리, 은메달을 확보했다. 27일 경기선발을 상대로 금메달에 도전한다.

소프트테니스 여자15세이하에서는 신광중이 대구 황금중에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복싱 15세이하 핀급 준결승에 나선 이창욱(광주체육중 3년)은 청주남중 김기범(3년)에 승리해 은메달을 확보, 27일 결승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전남선수단도 선전을 이어갔다.

레슬링 남자15세이하 자유형 -71kg급에 출전한 김정민(전남체중 3년)은 결승에서 대전체

육중 김도진(3년)에 풀승을 거둬 금메달을 따냈다.

역도에서도 메달 낭보가 이어졌다. 박건민(완도중 3년)은 남자 102kg급 용상에서 은메달(133kg)을, 합계에서 동메달(233kg)을 획득했다.

태권도 남자12세이하 38~42kg급에 나선 주재홍(무안 해제초 5년), 축구 남자12세이하 순천중앙초, 핸드볼 남자15세이하 무안북중, 요트 남자15세이하 정지혁(보성비봉SC) 등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테니스 여자12세이하 단식에 출전한 윤다경(강진동초 6년)도 3위에 입상하며 귀중한 메달을 안았다.

복싱 15세이하에서는 웰터급 손지후(손복싱 3년)가 서울 한시후(위빙복싱클럽 3년)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미들급 이승민(곡성복싱체육관 3년)도 울산 박시우(성지복싱집 3년)를 꺾고 결승에 진출, 27일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축구 여자15세이하에서는 전남광영중이 경기설봉중에 1-0 승리,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울산현대정운중이다. 조혜원 기자

광주 바둑 꿈나무들, 강호 서울 꺾고 정상

여자 12세이하부 우승

광주가 강호 서울을 제압하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바둑 여자 12세이하부 정상에 올랐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울산에서 열린 제52회 소년체전 이후 2년 만에 여초부 금메달을 되찾았다. 당시에는 경기도를 꺾고 정상에 올랐으며, 올해는 전통의 강호 서울을 상대로 다시 한번 금빛 판짜기에 성공했다.

김리원(각화초), 박연정(조봉초), 위서형(신창초·이상 5년)으로 구성된 광주 대표팀은 지난 25일 함양 고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바둑 여자 12세이하부 결승에서 서울 대표팀을 2-1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울은 매년 전국 단위 대회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강팀으로 광주의 승리는 ‘이번’으로 평가받고 있다.

3인 단체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광주는 전략적인 오퍼 운영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1번 위서형, 2번 박연정, 3번 김리원 순으로 출전해 종합 스코어 2-1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리원은 침착한 운영으로 마무리 승리를 따내며 부문별로 주어지는 여자 12세이하부 최우수선수(MVP)를 받았다.

한병성 광주바둑협회 감독은 “이번 대회는 대진이 양쪽으로 갈라진 토너먼트 형식이었고, 오퍼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했다. 상대 분석을 철저히 해 전략적으로 순서를 짰고 상대와의 공합까지 고려해 준비했다”며 “쟁쟁한 팀들



광주 위서형, 박연정, 김리원(왼쪽부터)이 최근 함양 고운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바둑 여자 12세이하 결승에서 서울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이 많아 걱정했지만 선수들이 생각 이상으로 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년체전을 준비하는 동안 광주 출신 프로기사인 권이슬, 이준호 선수와의 합동훈련을 진행하면서 기량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은 선수는 단연 박연정이었다.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 회장의 장녀로 ‘당구 집안의 바둑 유망주’라는 이색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 감독은 “몇 년 전부터 지켜본 선수인데, 기량이 정말 뛰어나다. 평소엔 명랑하고 친화력이 좋지만, 바둑판에 앉으면 누

구보다 신중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 선수단도 바둑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

남자 12세 이하부에 출전한 박주원(신대초), 이진혁(오룡초), 황준서(웅천초·이상 6년)가 단체전 정상에 올랐고 여자 15세이하부에서는 오경민(3년), 윤준우, 임준(한국바둑중·이상 2년)이 출전해 대회 4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은 이번 대회 바둑 종목 4개 세부 경기 중 2개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조혜원 기자

“국대 꿈 실현 내년 중등부 기록 도전”

평영 2관왕 영암초 문승유

“기록이 안 나오면 동기부여가 되고 잘 나오면 뿌듯해요. 내년에는 중학교에서 메달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영 샛별 문승유(영암초 6년)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수영 여자 12세이하부 평영 종목에서 2관왕에 올랐다. 소년체전 3년 연속 금메달 획득이기도 하다.

문승유는 대회 첫날인 지난 24일 평영 100m에서 1분13초9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튿날 평영 50m에서도 34초66의 기록으로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

문승유는 제52회 소년체전에서 여자 13세이하부 평영 50m와 100m(4학년이하부)에서 2관왕을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 53회 소년체전 여자 12세이하부 평영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평영 50m는 6위에 그쳤으나 올해 1위에 오르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초등학교 1학년때 수영을 시작했다는 문승유는 “언니를 따라 수영을 시작했는데, 코치님들도 잘 가르쳐 주시고 언니도 옆에서 늘 응원해 준다”고 말했다.

운동량은 만만치 않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 2시 40분부터 훈련에 돌입해 체조 후 수영 훈련만 4시간 가까이 이어진다. 일주일에 이들은 훈련 후 헬스장까지 둘러 근력을 보완한다. 이렇게 쌓은 훈련량은 기록 향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보다 키는 8cm 자랐고, 50m 기록은



문승유

2초, 100m 기록은 무려 5초 단축됐다.

문승유는 “황선우, 김우민 선수를 좋아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다. 나도 언젠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라며 “지금 은 언니들 기록을 보며 중학교 때 도전을 내밀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진 영암초 수영코치는 “초등학생은 부상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웨이트트레이닝도 하루 1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중학교 때까지 연계육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력과 체력을 차근차근 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코치는 “문승유는 훈련할 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소화해낸다. 그런 점이 강점”이라며 “지금 100m 기록이 1분13초인데, 중등부 1위 기록이 1분12초 정도다. 따라 잡는 건 시간문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문승유는 “이번이 초등부 마지막 경기인데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평영 100m에 자신이 있고, 메달도 많이 땀다. 경기를 앞두고는 ‘기록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코치님께서는 ‘긴장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중학생이 돼서도 경쟁력을 발휘해 메달을 따내겠다”고 다짐했다.

조혜원 기자

전남 공기권총 대회신 박세훈 “세계 1등 사수 될래요”

“열심히 훈련해서 언젠가는 진종오처럼 세계 1등 사수가 되고 싶습니다.”

전남 사격 유망주 박세훈(나주중 2년)이 전국소년체전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차지, 대한사격연맹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박세훈은 지난 25일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격 남자15세이하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580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단한 기본기와 흔들림 없는 멘탈로 경기를 압도하며 중등부 정상에 올랐고 대회 신기록은 덤이었다.

박세훈의 사격 입문은 이른 편이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 무언에서 나주로 전학을 오며 처음 총을 잡은 박세훈은 지난해 훈련 기간이 짧아 소년체전 출전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 출전한 소년체전 무대에서



박세훈

대회신기록이라는 반전을 써냈다.

짧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금세 눈에 띄었다. 첫 출전이었던 미추홀기사격대회에서 4위를 거둔 박세훈은 올해 열린 창원시장배와 대구시장배에서 나란히 개인전 은메달을 차지하며 전국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박세훈은 첫 소년체전을 준비하며 매일 방과 후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씩 자발적인 훈련을 해왔다. 특히 10점을 쏘기 전까지 기다리는 ‘집중 훈련’으로 심리적 안정과 기술 모두를 끌어올렸다.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장을 찾았고 동계훈련부터는 체력 강화와 집중력 훈련에도 힘썼다.

그 결과 박세훈은 580점으로 개인 최고기록은 물론, 소년체전 대회신기록도 경신했다. 중등부 공기권총 최고기록은 2014년 충무기 전국대회에서 김병호가 세운 581점으로, 단 1점 차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과 함께 신기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박세훈은 “금메달보다는 소년체전에서 신기록을 세운 게 제일 기쁘다”며 “공기권총 중등부 신기록도 꼭 깨고 싶다. 꾸준히 열심히 해서 전국체전, 국제대회, 그리고 언젠가는 올림픽 무대까지 나가 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김아름 나주중 사격 코치는 “박세훈이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온전히 발휘해줘 기쁘다. 사격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며 “절치부심하며 부지런히 진행한 훈련과 사격에 대한 애정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